

소설·영화 속 그 현장... '5·18 순례 코스' 따라가 보자

광주,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 배경을 따라 순회 '소년버스' 운행
전남, 영화 속 5·18 사적지·관광지 역사해설사와 함께 둘러보기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그동안 소설, 영화 속에서 나타난 5·18 현장들을 따라 광주·전남 '5·18 순례 코스'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광주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광주 출신 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장소인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곳곳을 하나의 길로 묶은 '소년의 길'을 조성, 걸으며 탐방할 수 있는 인문투어를 운영하고 '소년버스'도 운행한다.

광주시는 소년이 걸었던 길(2.1km)과 작가가 걸었던 길(1.8km) 등 두 주체별로 주요 장소들을 엮어 여행길을 조성했다.

소설 '소년이 온다' 속 장소와 5·18민주화운동의 실제 역사 현장, 관련 문화시설과 함께 과거 한강 작가가 유년시절을 보냈던 북구 중흥동 일대와 그의 모교 등을 하나의 관광 코스 안에 담은 것이다.

'소년이 걸었던 길'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광주YMCA-옛광주적십자병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상무로, 옛전남도청, 5·18민주광장, 전일빌딩245' 등으로 이어진다.

'작가가 걸었던 길'은 '골목길 문화사랑방(가칭), 효동초등학교, 중흥도서관, 전남대학교' 등으로 이어진다.

중흥도서관에서는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모티브가 된 고 문학학 열사의 어머니인 김길자 여사가 기증한 '소년이 온다' 책과 한강 작가의 도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한강 작가의 모교인 효동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건반 모양으로 한강 작가의 책 표지를 전시한 조형물이 전시돼 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골목골목까지 책의 영향이 미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북구 중흥동에 오는 12월 조성될 카페인 '골목길 문화사랑방(가칭)' 부지에서는 아트컨테이너 전시장 모듈을 설치해 5·18기록관 기획전시 영상,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일 행사 영상, 동호의 편지 영상이 송출된다. 소년이 걸었던 길과 작가가 걸었던 길을 잇는 푸른길공원과 연계한 동명동 법원 근처 농장다리에 위치한 '푸른길 문화센터' 내에서는 한강 작가와 김대중 대통령 등 노벨문학상과 노벨평화상 주요 수상자에 대해 전시한다.

전일빌딩245에서는 시민 518명의 한강 작가 작품 필사본을 전시하고, 책을 읽고 휴식할 수 있는 문화라운지를 운영한다. 오월 당시 아픔을 겪은 오월어머니집 회원들과 일반 시민, 지역 예술가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담은 전시회 'A4 액션 2025: 나에게 민주주의는 ○○○이다'도 감상할 수 있다.

옛적십자병원은 내부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옛광주적십자병원 관련 사진·영상이 전시되고, 외부에서는 광주전남작가회의 오월을 형상화한 걸개 시화 작품이 전시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소년이 온다' 기획 전시가 열린다. 소설 '소년이 온다'와 관련한 다양한 기록물 등 자료 50여점을 볼 수 있다.



'소년이 온다'

소년버스는 '소년이 온다' 책에서 등장하는 전남대학교 정문, 효동초, 광주역, 광주교, 전남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옛 광주적십자병원, 양림오거리, 양림미술관 등을 순회하는 버스다. 적십자병원과 옛 전남도청, 전일빌딩 등은 영화 택시운전사가 촬영된 장소이기도 하다.

소년버스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로 운행되며, 이용자가 '광주투어버스' 앱을 통해 정류장을 선택하면 차량이 도착하는 식이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하며, 요금은 1회 기준 성인 1700원, 청소년 1350원, 어린이 850원이다. 탑승 후 단말기 태그를 통해 결제하며 시내버스·지하철 환승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1일권(3000원)도 판매하며, 모바일 앱에서 구매 후 24시간 동안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전남에서는 영화 속 5·18 사적지와 관광지를 역사해설사와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전남도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5·18 역사해설사를 동행토록 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전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포·나주·화순·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 등으로 나뉜 8개 코스 중 하루 최대 2개 코스까지 가능하다.

목포의 경우 목포역-중앙공설시장 옛 타-목포중앙교회 옛 타-목포3해역 사령부 현병대 옛 타-동아약국과 안철선생 가옥 옛 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영화 1987 촬영지인 서산동 시화골목, 연희내 슈퍼 등도 인접해 함께 둘러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 등지에서는 5·18과 관련된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광주극장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에 걸쳐 '5·18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수배자' 윤환봉 선생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를 특별상영한다.

윤 선생은 5·18 당시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로 수배된 뒤, 화물선에 숨어 미국으로 밀항했다. 12년간 미국 망명생활 중에는 민족학교와 재미한국청년연합 등을 만들어 통일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으며, 1993년 5·18 수배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수배가 해제되자 귀국해 5·18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을 벌이다 2007년 6월 세상을 떠났다.

23일에는 독립서점 '소년의 서' 임인자 대표의 진행으로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 김경자 감독이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화(GV)도 열린다.

광주독립영화관 또한 17일까지 5월영화인문주간 '무한텍스트로서 광주'를 개최하고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를 상영한다.

/유연재 기자 yjiyou@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7일 금남로서 전야제... 1박 2일 행사 18일 오전 10시 5·18 45주년 기념식

기념식 주제 '함께, 오월을 쓰다'
대선후보 등 여야정치인 총출동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 곳곳에서 5·18 기념행사가 열린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 추모 주간이 시작됨을 알리는 '추모식'을 거행한다.

같은 날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5·18 기념행사의 '꽃'인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전야제가 열린다.

올해 전야제는 기존 오후 10시까지 끝나던 기념행사를 1박 2일로 확장해 이튿날 밤 9시까지 행사가 이어진다.

오전 11시부터 5·18민주광장, 동구 금남로1~3가 차 없는 거리, 동구 중앙로 일대에서 시민참여 거리버스, 오월연극제, 민주주의 대합창, 민주미술 전시 등 '시민만장'이 열린다.

오후 4시부터는 1980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금남로로 햇볕행진 했던 민족민주화운동을 재현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을 하고, 오후 5시부터는 5·18 기념행사의 꽃인 '전야제' 본 행사가 시작된다.

밤 9시 30분부터는 금남로와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집단 놀이 '대동 한마당'과 디제잉, 버스킹, 토론, 마당극으로 채워지는 심야행사 '잠 못드는 밤'도 펼쳐진다. 인근 중앙초에서는 316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보내는 '오월 텐트촌' 행사도 열린다.

5·18 당일인 18일 오전 10시에는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이 거행된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함께, 오월을 쓰다'로, 1980년 5월 광주의 민주주의를 현재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5·18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기념식에서는 미래 세대가 나서서 5·18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한 뒤, 여는 공연으로 노벨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책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모티브 문재학 열사와 '시민권 대변인' 윤상원 열사 등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상영한다. 가수 이정권과 로이킴도 무대에 올라 '남이 와도' 노래를 부를 예정이다.

기념 영상 '내일을 쓰다'에서는 518년 버스를 타고 노선을 따라가며 시민들이 바라보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공유하고, 광주시립합창단과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대합창곡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전야제를 하루 앞둔 16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무대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함께 걷는 길'을 노래할 계획이다. 이후 기념식 참석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기념식은 막을 내린다.

기념식 이후로도 행사는 이어진다. 20일 오후 3시에는 계엄군의 폭압탄압에 맞서 금남로를 가득 메웠던 택시의 행렬을 재현, 택시들이 광주시 북구

무등경기장부터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일대까지 행진하는 '민주기사의 날' 행사를 만날 수 있다.

5·18 최후 항쟁일인 27일에는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가 주최하는 '부활제'가 치러진다.

/유연재 기자 yjiyou@kwangju.co.kr

“시민·언론은 역사 감시자... 5·18에서 민주주의 희망 봤다”

'특별기고' 후쿠오카 일본 마이니치 서울지국장이 본 5·18과 12·3 사태

광주 도심 곳곳 탄흔·당시 발행 신문 등 보존...5·18 아픔 진행형
12·3사태, 44년전 악몽 재현...한강 작가 말처럼 죽은자가 산자 구해
“시민·언론사는 감으면 계엄군이 미래 억압” 광주일보 호외 인상적

광주의 중심가에는 곳곳에 싸움의 상흔이 남는다. 10층짜리 전일빌딩 245 꼭대기 벽면과 바닥에 새겨진 무수한 탄흔은 전두환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980년 5월, 계엄군이 광주시민에게 발포했을 때의 것이다. 시민 즉 일부도 무기를 드는 대규모 항쟁의 결과 160명 이상의 시민이 살해됐다. 이 '광주민주화운동'은 일본에서 '광주사건'으로 불린다.

전일빌딩 245 인근에 세워진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는 당시 신문이 전시돼 있다. 광주일보의 전신 전남일보 1980년 6월 2일자 조간 1면. 시인 김준태의 작품 '오 광주여! 우리나라 십자가여!'는 제목의 뒷부분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전남일보는 계엄 당국의 엄격한 검열을 받았다. 기자들은 당시 사장에게 이런 내용의 사표를 냈다. "우리는 사람이 개처럼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신문에는 한

줄도 실리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많은 광주시민의 뇌리에 되살아난 것이 지난 44년 전의 악몽이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에는 이런 명령이 열거됐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와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모든 보도와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명령을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따라 처벌한다'. 그리고 윤정권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심리는 장기화했다. 나는 한국의 많은 언론사가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을 전한 것에 경악했다. 만일 현재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판례가 되며, 한국의 대통령은 앞으로 윤 대통령과



후쿠오카 시즈야

역사에 눈을 감으면 언제든지 계엄군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억압하고 진실을 감춘다." 전일빌딩 245에 남아 있는 생생한 탄흔이나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전시된 수많은 기록들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일빌딩 245 꼭대기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자 한강 작가의 소설을 전시하는 코너가 눈에 들어왔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광주 출신이다. 광주 사건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를 열심히 읽는 시민들의 모습도 있었다.

나는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했던 말이 생각났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집

같은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반세기 전 군사정권 시대로의 회귀이며, 한국인이 1987년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 체제가 끝날 수도 있다.

나는 광주일보가 계엄령을 알린 호외의 다음 한 문장이 떠올랐다. '시민과 언론사가



후쿠오카 시즈야 마이니치 신문 서울 지국장이 지난 2월 광주일보사 편집국을 방문해 12·3 계엄 사태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필하면서 이런 물음을 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만장일치로 계엄령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면 이것은 당연한 판단이다. 다만 그 판단의 바탕에는 광주사건으로 계엄

령의 공포를 경험한 국민의 뼈아픈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이 국회에 투입됐을 때 몸으로 막아선 것 역시 많은 국민이었다.

시대착오의 길로 들어서던 한국의 현재를 과거가 도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무너져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앞길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